



와글와글 작은도서관

#서울 마포구 #임대료 지원

아이와 마음껏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

와글와글 작은도서관은 2011년부터 주민들의 출자와 후원과 동네 엄마들의 참여로 운영되어 온 마을공간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소리 내어 책을 읽어줄 수 있는 공간, 동네 엄마들이 모여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열린 도서관입니다.

‘와글와글’은 사람이나 벌레 따위가 한곳에 많이 모여 잇따라 떠들거나 움직이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름처럼 사람과 이야기가 와글와글한 도서관입니다.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와글와글작은도서관의 2017년은 어떠했나요?



- 도서관 언니오빠가 여러분의 선생님이 됩니다.**
- ☞ 일 시 : 8월 18일(금) 오후2시, 3시(각1시간)
 - ☞ 장 소 : 와글와글 작은도서관
 - ☞ 대 상 : 7세~초등2학년 / 8명
 - ☞ 장 좌 : 스노우볼, 부채, 캠퍼스액자, 실물화 (강좌별 접수인원 다름)
 - ☞ 참여방법 : 1인 최대 2개 선택가능 (강좌당 1천원)
 - ☞ 신 청 : 전화접수 (070-4176-5959) *8/1(목) 오전11:30~
 - ☞ 특이사항 : 현장에서 선착순 강좌 선택(오후1:40부터)



긴급지원119를 통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지출하면서, 도서관 활동에 집중을 할 수 있었고 도서관 문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도서관의 출자와 후원만으로 공간 유지가 힘든 상황에서 자원봉사자들은 공공사업 공모로 운영비를 마련하였습니다. 도서관의 모든 수익을 월세에 모두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간유지를 위한 사업이 아닌 도서관을 즐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사업을 실행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자주 들리는 시점이었습니다. 긴급지원119사업으로 임대료를 지원을 받는 동안 운영진은 앞으로의 도서관의 운영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와글와글의 2017년 가장 큰 성과는 아이들이 와글와글한 도서관의 모습을 되찾은 것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도서관에 오는 횟수가 적어집니다. 학교 수업 후 방과 후나 학원으로 아이들이 바쁘게 오가다보면 도서관에서 뒹굴뒹굴 책과 노닐거나 친구들과 노닥노닥할 시간은 미뤄두게 됩니다. 2017년 와글와글 작은도서관은 ‘언니도 선생님’을 계기로 바쁘던 언니, 오빠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일정을 진행하기 위해 도서관에 짬짬이 들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프로그램 당일 접수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도서관 실내가 북적이던 모습이 진짜 와글와글작은도서관의 모습이었습니다. 긴급지원119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언니도 선생님’과 같은 문화활동을 계기로 오늘도 도서관의 일상은 와글와글합니다.

앞으로도 ‘언니도 선생님’을 계기로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도서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언니도 선생님’ 사업의 취지는 ‘초등학생도 선생님이 될 수 있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서 의견을 나누고 준비하는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어린이에게 주고 싶다.’였습니다. ‘언니도 선생님’ 프로그램의 전 과정은 어린이가 주체가 되어 진행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프로그램 기획과 물품 준비 등 의견을 나누고 추진하는 경험을 했고, 선생님과 학생으로 만난 초등학교 선후배는 동네 안에서 자연스럽게 재능을 가르치고 배우는 새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학교와 도서관에서 친밀한 관계로 자연스럽게 인사



를 나누는 동네 형님동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와글와글 작은도서관은 동네의 엄마들이 운영진이다 보니, 무엇보다 또래 엄마들의 요구를 반영한 도서문화프로그램(동화랑 쿠키랑, 어린이 삼시세끼, 언니도 선생님, 책소풍 등)을 기획하여 동네 문화 활동의 거점으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입니다. 와글와글 작은도서관의 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성인과 아이들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타인에게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로 모임을 만들고, 성인과 아이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속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와글와글작은도서관의 2018년은 어떠한가요?

와글와글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를 분석, 적용하여 도서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동네의 문화활동과 모임의 거점으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동네의 모임의 장으로 성인과 아이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언니도 선생님'을 정기적 운영하여 어린이가 주체가 되는 와글와글 작은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와글와글작은도서관은 본연의 역할인 도서 문화 활동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며 공간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과 함께 꾸려가는 도서관으로 다시 도약하려고 합니다.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때로는 일이 더디게 진행되고 두서없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크고 작은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대단한 공간이라는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